



안녕하세요 위클리예요

[Weekly: 2026/05/26~2026/05/31]

2026.06.01

[로봇] 제2의 간부치킨 회동

- 엔비디아 젠슨황 방문 소식에 LG전자 등 주가 초강세. 제 2의 간부치킨 회동 기대감
- 현대차 아틀라스는 월드컵 시축 연습, 피규어 AI는 물류센터에 취직, 테슬라는 양산 준비
- 유니트리 상장 가부 결정 임박, 엔진 AI는 1만대 규모 양산 능력 구축

[방산] 한화가 독일에 제안한 것들

- 활발히 움직이는 수주 이야기. 중동 방공부터 스웨덴 자주포, 유럽 L-SAM까지
- 트럼프 정권, 유럽 NATO 군사 전력 대폭 축소 계획에 균열 커지는 미국유럽
- 트럼프, 이란과 중전 양해각서에 대한 최종 서명을 거부

[조선] 온통 군함에 쏠린 시선

- 치열해지는 캐나다 CPSP 막판 경쟁. 독일도 구체적인 숫자와 납기를 공개
- 핵감 기본 계획 발표. 미국과 핵연료 도입 등 구체적인 협상 개시 예정
- KDDX도 2차 입찰에 HD현대중공업 참여하며 수주전 본격 가동

[항공] 견조한 화물 수요

- IATA, 중동 걸프 허브 차질에도 4월 글로벌 항공 화물 수요 +4%yoy 증가
- 제주항공 B737-82대 구매 도입, 차세대 항공기 12대로 LCC 1위
- 대한항공 한진칼 신용등급 상향 조정, 통합 시너지 기대감

[해운] 컨테이너 운임 급등

- SCFI 1년 5개월만에 2,500선 회복, 중동 노선 운임 사상 최고치 경신
- 미이란 중전 협상 중 LNG선 2척, 유조선 1척 호르무즈 해협 통과
- HMM 중국 형리조선소에 VLCC 4척 발주, 컨테이너 넘어 에너지 해운 확대



Weekly Keyword

제2의 간부치킨 회동

엔비디아 젠슨황 CEO가 한국을 방문할 예정. 피지컬 AI 등 국내 주요 기업과 협업 논의할 전망. 로봇 섹터도 작년 간부치킨 회동 때처럼 관심 확대 전망이나 구조적 수혜 여부에 대해서는 주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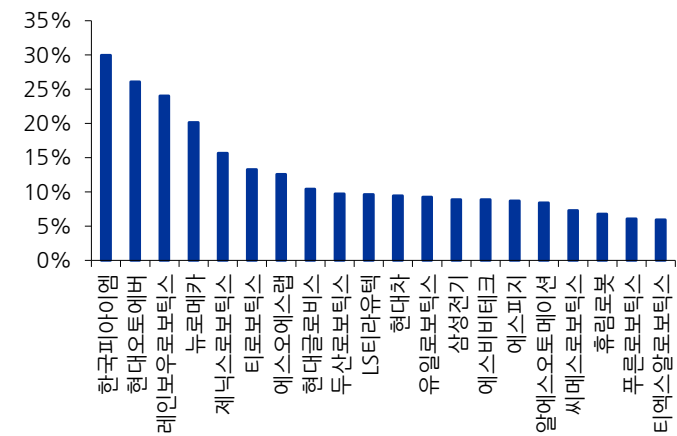


What's new? - 로봇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28)

[제2의 간부치킨 회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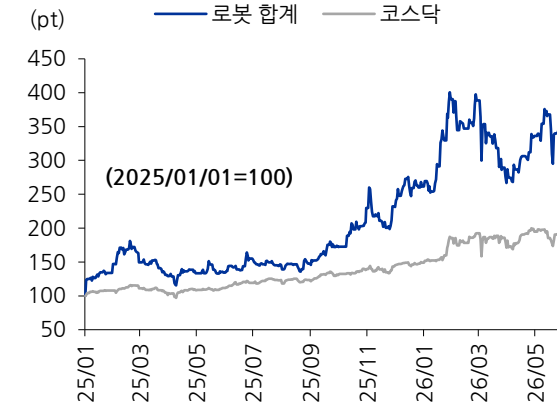
6월 5일 엔비디아 젠슨황 CEO가 한국을 방문할 예정. 이에 LG, 현대차 등 국내 주요 기업과 회동할 것이란 계획이 알려지며 로봇 섹터에서도 관심 확대되는 중. 작년 10월 30일 간부 치킨 회동 후, T+1 기준, 한국피아이엠(+30%), 레인보우로보틱스(+24%), 현대오트모에버(+26%), 뉴로메카(+20%), 제닉스로보틱스(+16%) 등 관련 주들이 초강세를 기록했던 역사가 있는 만큼, 이번 회동 전후로도 로봇 관련 기업들(LG, 현대차, 두산 등)에 관심 높아질 것으로 전망. 다만, 엔비디아가 우리의 '고객'인지, 아니면 우리가 엔비디아의 '고객'의 입장인지는 회동 및 협업 내용을 토대로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겠음.

Key Chart: 작년 1차 간부치킨 회동 후 주가 수익률(T+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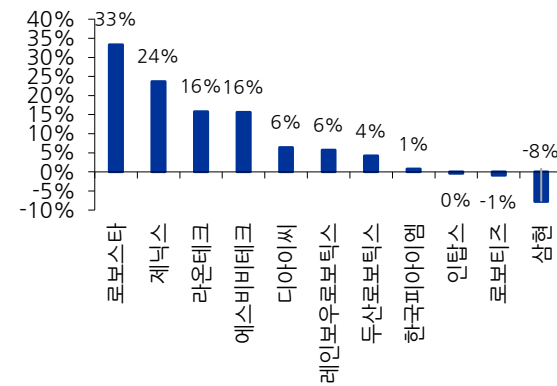


자료: 유진투자증권
주) 25년 10월 30일~10월 31일 수익률

국내 로봇 기업 및 코스닥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로봇 기업 1M 시총 변화 Top 10



자료: Quantwise

로봇 주요 뉴스(05/26~05/31)

[전통 로봇(산업용/서비스)]

- 로보티즈, 하반기 5세대 자율주행로봇 출격
- 큐렉소, '큐비스-스파인' 멕시코 의료기기 허가 획득

[휴머노이드]

- 현대차 로봇 '아틀라스', 월드컵서 시총 나서나

[부품/SW/기타]

- 젠슨 황, 다음주 한국 온다. '제2의 간부회동' 열리나
- 현대차그룹, 로봇·SDF 전담조직 신설
- 삼성전자, 챗GPT 등 사내 활용. 제조로봇도 도입
- NC AI, 현대로템 손잡고 '국방 피지컬AI' 승부수
- 뉴로메카 1,500억 유증 제동. 최대주주 지분을 하락 우려

[Global]

- 젠슨 황, 다음주 한국 온다. '제2의 간부회동' 열리나
- 현대차그룹, 로봇·SDF 전담조직 신설
- 삼성전자, 챗GPT 등 사내 활용. 제조로봇도 도입
- 테슬라, 북미·유럽서 휴머노이드 로봇핸드 공개
- 뉴로메카 1,500억 유증 제동. 최대주주 지분을 하락 우려

[글로벌]

- 유니트리, 내달 1일 中 상하이증시 A주 상장 심사
- 中 유니트리, IPO 앞두고 1분기 순익 52% 급감
- 中 엔진시, T800 양산 개시. "年 1만 대 목표"
- 피규어시 휴머노이드, 美 리테일 물류센터 들어간다
- 딥마인드, 로보틱스 인재 확충. 아틀라스 연구 리더 합류
- 보스턴다이나믹스 부사장 "미 정부가 로봇 도입 지원해야"
- 4월 日 공작기계 수주 45%. 데이터센터 등 수요 견인



Weekly Keyword

한화가 독일에 제안한 것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독일을 향한 러브콜이 강화되고 있음. 잠수함 등에서는 경쟁 중이지만, 현지 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한 유럽 생산 거점 확보를 추진. 독일 시장 진출 가능성에 주목.



What's new? - 방산 산업 주요 이슈 & 스테디(76)

한화가 독일에 제안한 것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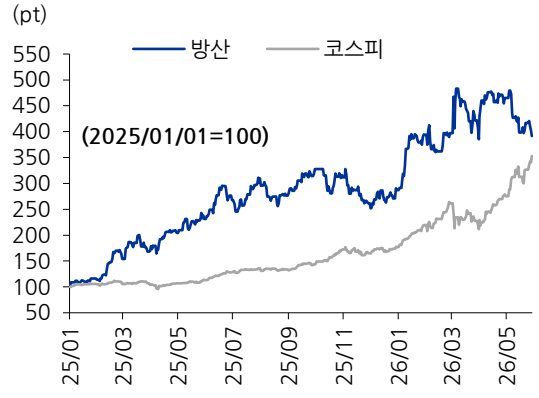
-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독일에 전략적 투자 확대를 제안. 독일 내에 생산 시설과 R&D 센터를 설립하여 독일 및 유럽 시장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 추진. 미사일과 탄약을 넘어 항공, 우주, 해양 분야에서의 협력도 추구. 아이টে으로 L-SAM, MCS, 천무, EWR(조기경보 레이더)를 제시.
- 올해 4월 토르스텐 쿠츠 독일법인 COO가 현지 매체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듯, 이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년간 생산 거점을 찾기 위해 독일 주정부들과 협의를 진행해왔고, 5개 연방주로부터 관심 표명을 받은 상황.
- 만약, 한화의 독일 사업이 가시화된다면, 보호주의가 강해지고 있는 유럽 내 사업 기회가 강화될 수 있음. 잠수함 분야에서는 TKMS와 경쟁하고 있지만, 한화시스템이 독일 Diehl과 방공 레이더 협업을 진행 중인 부분도 있어, 경쟁과 더불어 상호 보완도 가능한 구조로 판단.

Key Chart: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독일에 제안한 것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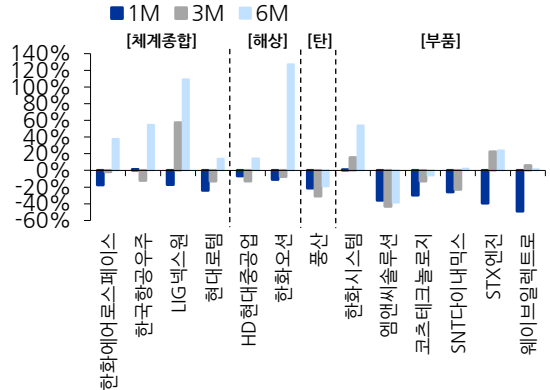
구분	주요 내용 및 세부 계획
전략적 투자 계획	경제적 기여: 수십억 유로 규모의 직접 투자와 수천 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 제안
	현지 거점화: 독일 내 생산 시설 및 R&D 허브를 구축하여 유럽 시장 공략의 전초기지로 활용
	산업 생태계 협력: 독일 중소기업(SME) 및 주요 기업들과 기술 이전 및 공동 개발 추진
독일 내 비전	파트너십 강화: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관계 지향
	사업 영역 다각화: 방산(탄약, 미사일)을 넘어 항공, 우주, 해양 분야로 협력 범위 확장
	기술 시너지: 한국의 제조 역량과 독일의 엔지니어링 기술 및 인재를 결합한 시너지 창출

자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진투자증권

국내 방산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방산 기업 시총 변화



자료: Quantiverse

방산 주요 뉴스(05/26~05/31)

[수주/계약]

- 천궁에, 카타르-쿠웨이트 수출 임박
- UAE에 자주대공포 'K30 비호복합' 수출 검토
- 국방차관, 스웨덴 국방차관 접견. 방산협력 강화 논의
- 루마니아 IFV, 獨 라인메탈 유력. 한화 "역전 가능"
-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무장시험 완료. 내년 양산

[기업별 이슈]

- 한화, 장약 스마트팩토리 투자 8,538억으로 확대
- 스웨덴 국방 관계자들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SAM 폴란드에 공식 제안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지분율 7.22%로 늘려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독일과 영국에도 방산제품 수출 논의
- 한화의 독일 방산 허브 구상. L-SAM·EWR까지
- KAI 노조 "한국수출입은행 만나 대주주 역할 요구"

[기타]

- 우주항공청-한화에어로, 900억 투입 항공엔진 국산화
- KF-21 '블록 II' 내년 예산 625억 의결
- 美싱크탱크, "천궁에, 패트리엇 대체재 역할 의문"

[글로벌]

- 트럼프 정권, NATO 군사 공헌 축소 통보
- 스페인 대법원, 美 제너럴 다이내믹스 소송 기각
- 미국, 록히드 마틴의 사드 미사일 생산 확대
- 美, 패트리엇 미사일 PAC-3 폴란드 현지 생산 사전허가
- 加 전투기 조종사 학교가 M-346 훈련기 도입
- 캐나다, 美 보잉 대신 스웨덴 사브 조기경보기 구매



Weekly Keyword

온통 군함에 쏘린 시선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독일과의 막판 경쟁에 돌입한 캐나다 잠수함부터, 핵 잠수함 도입 본격 추진, KDDX 2차 입찰, 한화오션의 그리스 조선 협력 프로젝트 발표 등 군함쪽 이슈가 많았던 한 주.



What's new? - 조선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56)

[온통 군함에 쏘린 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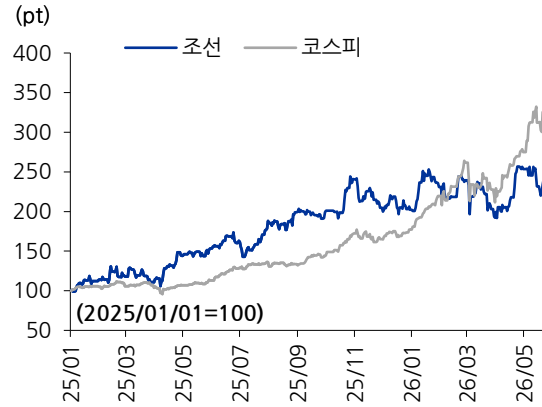
- 6월 27일~28일 캐나다에서 CANSEC 개최. 전주에는 캐나다에 입항한 도산안창호함이 주목받았다면, 이번에는 독일의 CPSP를 향한 구매에 이목 집중.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 장관이 캐나다를 방문해 경제 효과(860억달러)를 제시하고, 납기도 2036년까지 4척 인도하겠다고 발표. 한국의 공세적인 움직임에 위기감을 느낀 것인지, 아니면 NATO의 테두리 내에서 승리에 쏘기를 박기 위해 공개한 것인지는 6월 내로 곧 확인이 가능할 전망. 한국에서는 이번 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캐나다를 방문할 계획.
- 작년 말 이후 정체되었던 핵 잠수함 도입 추진도 본격화(장보고-N). 미국과의 핵 연료 공급 방법 구체화 주목. 다만, 수출할 수 있는 함종은 아니기 때문에 편더멘털로 6월에는 KDDX 사업의 향방도 윤곽이 나올 전망. 한화오션은 그리스 ONEX 그룹과 2조원 규모의 프로젝트 트라이던트를 발표. 동유럽 함정 시장 교두보 역할 기대.

Key Chart: 핵잠 도입 추진을 발표하는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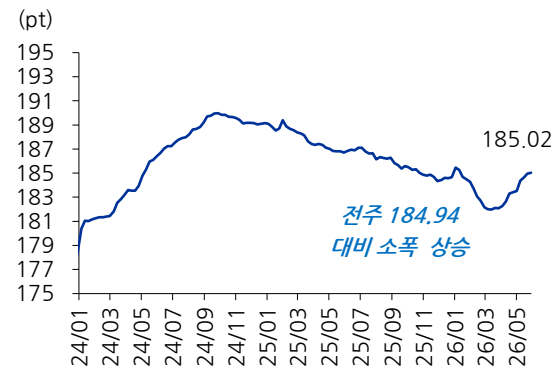


자료: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국내 조선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신조선가 추이



자료: Quantwise, Clarksons

조선 주요 뉴스(05/26~05/31)

[상선/해양]

- 삼성중공업 \$252.0m LNGC 1척 수주
- 삼성중공업 \$113.0m VLGC 2척 수주
- 삼성중공업 \$92.0m 수에즈막스 2척 수주
- BW LPG, HD현대중공업에 VLGC 8척 발주

[특수선]

- 60조 잠수함 사업 수주전. 강훈식, 캐나다로 출국
- HD현대중, 캐나다 조선소 찾아 잠수함 수주전
- 한화오션, ONEX와 '2조원 규모' 그리스 방산 허브 구축
- 그리스 잠수함 사업 '군불' 한화 현지어 홍보
- 이 대통령 '핵잠 기본 계획' 발표. '핵잠 속도전'
- 안구백, 美상·하원 대표단 면담. 전작권·핵잠 지지 요청
- 美 국방장관, "韓 핵잠은 중요한 전력"
- 한미, 2~3일 서울서 핵잠 및 핵연료 농축·재처리 협의
- 필리조선소, 핵잠 대비 美 기밀함정 보안체계 구축 착수
- 2년 표류 KDDX, 다시 시동 걸까. 28일 재입찰 마감
- 美 푸에르토리코함 오버홀 HD현대·한화오션 2파전

[기타]

- HD현대, '해외사업본부' 신설, 글로벌 야드 공략
- HD한국조선, 미국 LNG 프로젝트 전담 조직 가동

[글로벌]

- 日 모가미급 전함, 뉴질랜드 "수출 협의 돌입"
- 카타르에너지, LNG 운반선 5척을 1년 계약으로 용선
- "2036년까지 4척 인도" 급해진 독일 파격 제안
- 加 잠수함, 독일에 발주하면 경제효과 860억 달러



Weekly Keyword

견조한 화물 수요

중동 전쟁 장기화에도 4월 글로벌 항공화물 수요는 강세를 기록. 해상운송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항공화물 운임 상승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한항공의 2분기 실적 방어력이 부각될 것으로 판단.



What's new? - 항공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76)

[견조한 화물 수요]

- 중동 전쟁이 3개월을 넘어서는 가운데, 견조한 항공화물 시황에 힘입어 항공업종의 2분기 실적 우려는 일부 완화될 것으로 판단. IATA에 따르면 4월 글로벌 항공화물 수요는 CTK 기준 +4.0%yoy 증가, 공급은 ACTK 기준 -0.4%yoy 감소를 기록. 이에 4월 BAI 운임 지수(홍콩-북미)는 6.94달러/kg(+29.5%yoy) 급등.
- 해상운송 차질로 긴급 물류 수요가 항공화물로 전환되는 가운데, 반도체·SI 부품 등 고부가 화물 수요도 견조한 흐름 지속. 대한항공은 전용 화물기와 장거리 노선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1Q26 별도 매출 중 화물 비중도 24%로 높은 수준. 이에 화물 운임 상승은 대한항공에 고유가·고환율 부담을 일부 상쇄하는 실적 방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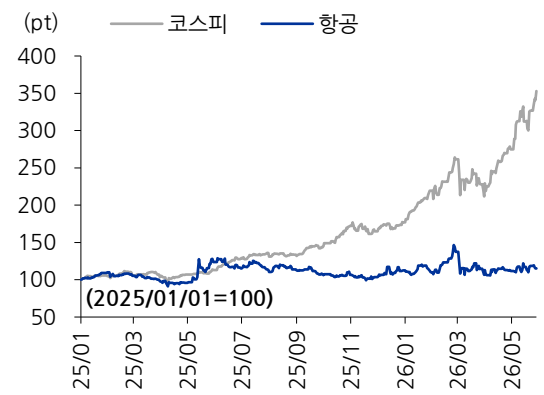
Key Chart: 4월 항공 화물 시장 데이터

APRIL 2026 (%YEAR-ON-YEAR)	WORLD SHARE *1	CTK	ACTK	CLF (%-PT) *2	CLF (LEVEL) *3
Total Market	100%	4.0%	-0.4%	1.9	46.0%
Africa	2.1%	7.7%	-9.4%	7.8	49.1%
Asia Pacific	35.8%	10.5%	5.3%	2.2	47.0%
Europe	21.4%	6.0%	3.0%	1.5	53.4%
Latin America and Caribbean	2.9%	-2.8%	1.2%	-1.6	37.4%
Middle East	13.2%	-18.2%	-22.9%	2.7	46.0%
North America	24.6%	5.0%	1.2%	1.5	4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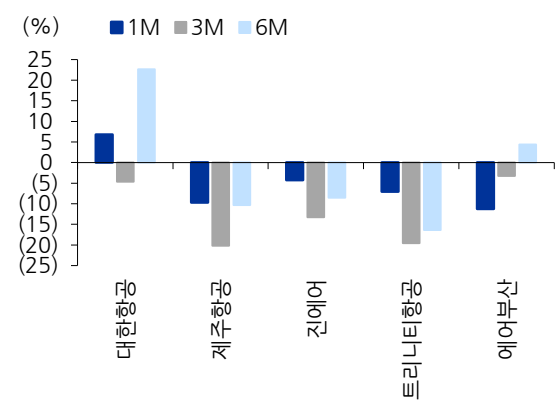
(*1) % of Industry CTK in 2025 (*2) Year-on-year change in load factor (*3) Load factor level

자료: IATA, 유진투자증권

국내 항공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항공사 시총 변화



자료: Quantwise

항공 주요 뉴스(05/26~05/31)

[여객/화물]

- 2050년 항공시장 3배 성장, 인프라 강국 韓 아태 이끌 것
- 항공화물 운임 28% 급등, 대한항공 실적 베타목 되나
- 비싸도 급하면 화물기 탄다, 전쟁으로 항공화물 수요 급증

[기업별 이슈]

- 대한항공·한진칼 신용등급 상향 조정, 통합 시너지 기대감
- 대한항공, 광꾸켓 감편 이어 두바이 운항 중단 장기화
- 대한항공, 이르면 7월부터 '스타링크' 기내 인터넷 순차 도입
-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비상탈출시범 성공, 안전 역량 입증
- 통합 앞둔 한진그룹 LCC 3사, 총 59대로 제주항공 제친다
- 제주항공 B737-82대 구매 도입, 차세대 항공기 12대 보유
- 트리니티항공 1분기 금융비용 605억원, 전년비 2배 급증
- 파라타항공, 6월 일부 동남아 노선 비운항 결정
- 삼성SDS, ICCS 2026서 인도 항공 화물 시장 공략 가속화

[기타]

- 항공기 수주 호조로 美 4월 내구재 수주 +7.9%mom 급증
- 전쟁 여파로 4월 생산·소비·투자 8개월만에 '트리플 감소'

[글로벌]

- 日 JAL그룹 우주 운송 사업 진출, 2028년 달 착륙 임무 목표
- 케세이 카고, 글로벌-GBA 통합 콜드체인 공급망 구축
- 비엠텐항공, 10월 하노이-프라하 신규 노선 취항 예정
- 에어인디아, 고유가 압박에 6~8월 국내선 운항 22% 감축



Weekly Keyword

컨테이너 운임 급등

GRI, 할증료 인상과 선사들의 공급조절이 맞물리며 SCFI는 2,500 선을 회복. 호르무즈 통항이 정상화 되더라도 보험료, 연료비 등 비용 부담이 남아있어 향후 성수기 물동량 지속 모니터링 필요.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RA 임범수
02) 368-6168_beomsu@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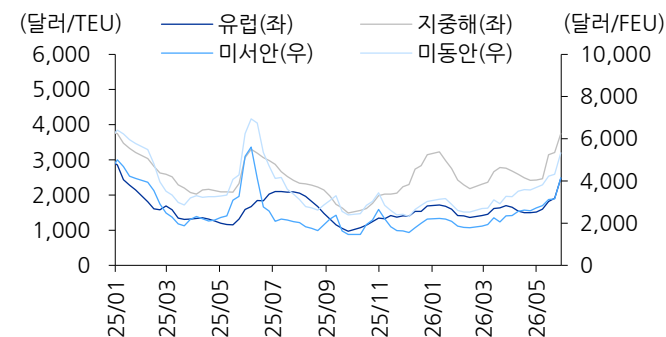


What's new? - 해운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9)

[컨테이너 운임 급등]

- 5/29 주간 기준 SCFI는 2,572pt(+16%wow)로 1년 5개월만에 2,500선을 회복. 동서 기간항로(북미, 유럽)의 운임 급등이 지수 상승을 주도. 미서안 4,149달러/FEU(+32%wow), 유럽 2,475달러/TEU(+30%wow), 지중해 3,750달러/TEU(+17%wow)를 기록. 컨테이너선의 조기 성수기 진입 확인.
- 운임 상승의 배경은 6월 GRI 및 할증료 인상과 선사들의 공급조절이 동시에 작용한 영향. 중동 전쟁이 3개월을 넘어서며 선박 우회, 연료비 상승이 선박 운용에 부담으로 반영되는 가운데, 선사들은 공선 운항 등으로 공급자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Drewry도 조기 성수기와 FAK 인상 지속으로 향후 몇 주간 운임 상승 추이가 지속될 가능성을 제시. 다만 운임 상승이 전부 선사 이익 개선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 향후 성수기 물동량과 선사별 비용 전가력 모니터링 필요.

Key Chart: 주요 항로별 컨테이너 운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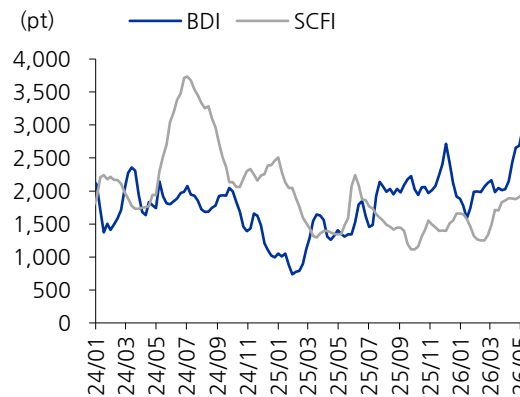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유진투자증권

국내 해운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해상운임 추이



자료: Quantwise, Clarksons

해운 주요 뉴스(05/26~05/31)

[벌크선]

- 美 세이프벌커스, 신조선 4척 투자로 친환경 선대 재편
- 팬오션 곡물 매출 2조원 가시권, '한국판 카길' 숙원 이루나

[탱커/가스선]

- 호르무즈 리스크 완화에 선박연료비 하락, 해운 숨통 트이나
- AIS 끄고 조명 소등, 미군 지시 따라 호르무즈 '암흑 항해'
- 중동 원유 수출 급감, 주요국 중 한일 수입 감소 폭 최대
- 美 수출-중 재고 소진이 공급망 충격 흡수, VLCC 시장 재편
- HMM 中 조선소에 VLCC 4척 첫 발주, 에너지 해운 확대

[컨테이너선]

- SCFI 1년 5개월 만에 2,500선 회복, 주요 항로 운임 상승
- 선사들 6월 인상 예고, 선적 앞당기기로 조기 성수기 시작
- 인도-미국 성수기 GRI 인상 계획, 남아시아 수출업체 긴장
- 유럽 정기선사들 유럽-남미 동서해안 물동량 93.3% 장악
- HMM 나무호 수리 장기화, 전쟁보험금 지급도 지연 우려

[기타]

- 중전 MOU 협상 와중 군사 재충돌, 호르무즈 다시 긴장
- 美이란 협상 속 LNG선 2척, 유조선 1척 호르무즈 통과
- 美 파이프샌들러, 호르무즈 열려도 연내 정상화는 요원
- 한 번 지나가는데 30억, 해운사 전쟁 보험료 부담 확대
- 日 해운-자동차업계 호르무즈 대체 '우회 수송' 총력
- 해수부, 북극항로 시대 '남부 해양수도권' 청사진 공개
- 금감원 '26년 주채무계열 선정. 장금상선, SK해운 신규 편입